



5. 불치병 없는 세상이 가까워 오고 있어

학습목표 '-아/어/여 가다/오다'를 사용하여 행위나 상태, 상태 변화의 진행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내용 -아/어/여 가다/오다



생각해 봅시다



- 복제 양 돌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줄기세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

- 민** 너 어제 뉴스 봤어? 손가락이 절단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사람 몸의 조직을 이용해서 다시 손가락을 만들어 낸 사건 말이야.
- 지호** 그게 가능한 얘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 민** 나도 잘은 모르지만 줄기세포인가 하는 것으로 치료를 했다. 자기 몸에서 줄기 세포를 뽑아내서 이식을 하면 손상된 부분의 세포가 형성된대더라.
- 지호** 진짜 신기하다. 마술 같아.
- 민** 그렇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의 장기를 다시 만들 수 있대.
- 지호**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나는 그런 일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 불치병 없는 세상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네.
- 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과학의 발전이 정말 놀랍지 않니?
- 지호** 그러게. 그렇다면 자꾸 늘어 가는 내 여드름투성이 얼굴을 새 얼굴로 다시 만드는 것쯤은 문제없겠네.
- 민** 그럴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발 뺀고 자도 되겠다. 하하.

도입 질문

1. 가족이나 아는 사람 중에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2.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줄기 세포가 뭔지 알아요?
4. 줄기 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 병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본문 학습 순서

- 1) 도입 질문을 한다.
- 2) 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 **이해 질문 1(포괄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민과 지호는 어떤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답: 잘린 손가락을 다시 만들어 낸 사건)
 - 무엇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답: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었다.)
- 5) 질문 4)의 답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
- 6) 4)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해 질문 2(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줄기 세포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거의 모든 부분의 장기를 만들 수 있다.)
 - 과학의 발전으로 지호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드름투성이 얼굴을 고치는 것)
- 7) 새 어휘를 설명한다.
- 8)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
- 9)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 (혼자 또는 짝지어)
- 10)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

*상황(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 교실 상황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내용 이해 질문

- (1) 지호와 민은 공상과학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O, X)
 답 : (X) 두 사람은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2) 손가락이 잘린 사람은 자기 몸의 조직으로 손가락을 다시 살릴 수 있었다. (O, X)
 답 : (O) 병원에서 다친 사람의 몸의 줄기세포로 손가락을 만들어 냈다..



어휘

절단	to cut off	형성	formation
조직	tissue	장기	organ
줄기세포	stem cell	불치병	incurable illness
뽑아내다	to pull off, draw	여드름	pimple
이식	transplantation	투성이	(be) full of
손상	damage	발 뻘고 자다	to sleep comfortably

뽑아내다: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 간호사가 주사기로 피를 **뽑아내고** 반창고를 붙였다.
 √ 반창고 : band-aid
- 엄마: 여보, 뭐 해요?
 아빠: 벽에 박힌 필요 없는 못을 **뽑아내고** 있어요.
 √ 박히다 : to be stuck
 √ 못 nail
- 책장에서 읽은 책을 **뽑아냈다**.

(참고) '뽑아내다'는 '뽑다'와 '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동사이며 붙여 쓴다.

손상: 다치거나 상함

-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들으면 귀의 신경 세포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 √ 신경 nerve
- 세탁기를 잘못 사용하면 옷감이 **손상**되기 쉽다.
 - √ 옷감 clothes
- 병이 **손상**되지 않게 뚜껑을 열었다.

형성: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다

- 청소년기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 √ 인격 character
- 이 곳에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 이 마을에 상가가 **형성**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다.

여드름: 청소년기에 주로 얼굴에 많이 아는 작은 종기

- 지나: 오빠, 내 **여드름** 연고 어디 있는지 알아?
지호: 안방 서랍장 안에 있을 거야.
- **여드름**은 사춘기의 상징이다.
 - √사춘기 adolescence /awkward age
 - √상징 symbol
-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나셨다고 한다.

N투성이: 어떤 것이 너무 많은 상태

- 등산을 갔다 왔는데,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다.
- 어찌다가 다리가 상처**투성이**가 되었니?
- 영화에서 괴물이 피**투성이**가 되어 주인공에게 다가갔다.

발 뻘고 자다: 마음 편하게 자다

- 방학 숙제를 다 했으니 이제 **발 뻘고** 잘 수 있겠다.
- 모든 일이 잘 해결될 테니까 **발 뻘고** 주무세요.
- 시험이 다 끝나서 오늘부터 **발 뻘고** 잘 수 있어요.



문법학습

-아/어/여 가다/오다

어떤 동작이나 상태, 상태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아/어/여 가다/오다'는 동사와 형용사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밤이 깊어 간다.': 밤이 깊은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 ① 일이 끝나 갑니다 .
- ② 다 먹어 가니 잠깐만 기다려.
- ③ 결정의 순간이 가까워 온다.
- ④ 날이 점차 밝아 오니 떠날 준비를 하세요.

'-아/어/여 가다/오다'는 동사와 형용사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문장 만들기

'-아/어/여 가다/오다'를 사용하여 질문에 알맞은 대답 만들기

- 1) 가: 숙제는 아직 안 끝났어?
나: _____
- 2) 가: 6년 동안 호텔 요리사가 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도 합격을 못 했어. 대체 언제까지 시험을 봐야 해?
나: 조금만 참아. 지금까지 잘 _____잖아.
- 3) 가: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 30년 동안 훌륭한 제자를 _____ 분이죠.

문장만들기->대화 만들기 (title 수정)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적습니다. 문장 만들기, 대화 연습하기 외에도 문형에 따라 다르게 집필할 수 있습니다.

대화 연습하기

지나 : 하늘을 좀 봐. 비가 그쳤어.
 유리: 그래, 구름이 점점 걷혀 가고 있어.

엄마: 지나야, 어제 잠 못 잤니?
 지나: 네, 오늘 시험 때문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공부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귀엽네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점점 아빠를 닮아 가는 것 같아요.

지호: 엄마, 초등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머니: 6학년 때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아. 평생 제자들을 키워 오신 훌륭한 분이시지.



심화학습

1. 어떤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의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 지금까지 먹어 온 음식을 왜 먹지 말라는 거야?
-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 온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 숙제를 다 해 가니 조금만 기다려 줘.
- 하는 일은 잘 돼 가요?
- 아버지는 직장에서 30년이나 일해 오셨다.

2. '-아/어/여 가다'는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 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고 '-아/어/여 오다'는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낸다.

- 책을 다 읽어 간다.
- 날이 더워서 꽃이 시들어 간다.
- 민수는 지금까지 아픔을 잘 견뎌 오고 있다.
- 날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상태의 변화나 진행을 표현하는 문형

-고 있다, -아/어/여지다 등

동사 '가다'와 '오다'의 기본 의미를 생각하면 '-아/어/여 가다'와 '-아/어/여 오다'가 기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뽑아내다 손상 형성 여드름 투성이 발 뺏고 자다

- 1) 시험이 다 끝났으니 오늘은 발 뺏고 (으)ㄹ 수 있겠다.
- 2) 얼굴에 난 여드름 이/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멈출 줄을 모른다.
- 3)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뭘로 뽑아내야 아/어/여야 하지?
- 4)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이 손상될 (으)ㄹ 수 있대요.
- 5)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 온 몸이 먼지 투성이 이/가 되었다.

해설 :

- 1) 시험이 다 끝났으니 오늘은 발 뺏고 잘 수 있겠다.
- 2) 얼굴에 난 여드름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멈출 줄을 모른다.
- 3)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뭘로 뽑아내야 하지?
 ✓ 박히다: stuck in
 ✓ 가시 thorn
- 4) 이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이 손상될 수 있대요.
 ✓ 간 liver
 ✓ 기능 function
- 5)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 온 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 먼지: dirt

2.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1) 한국어를 배운 지 벌써 2년이 _____ .
 ① 됐어 간다
 ② 되어 간다
 ③ 되고 간다

해설 : ①에서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아/어/여 가다/오다'에서 시제는 '가다/오다'와 결합한다. ③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 2) 날로 발전해 _____ 과학 문명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다.
 ① 한
 ② 있는
 ③ 온

해설 :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전하는 상태가 계속되는'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③뿐이다.

- 3) 그 과학자는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에 대해 _____
 ① 연구해 왔다
 ② 연구하지 왔다
 ③ 연구해져 왔다

해설 : '②는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③은 서술어에 피동의 의미가 있어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다.

1. 어휘 연습

- 1) '발 뺏고 자다'는 관용 표현이므로 '발 뺏으면서 자다' 등 다른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 4) 문맥에 주의하여 '손상되다'와 '손상하다'의 피동과 능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5) '투성이'는 명사와 결합함에 주의한다.

2. 문법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아/어/여 가다/오다]
 - 상태의 변화나 진행
 - 기준점에서 가까워지거나

3.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아빠는 침대에서 자다가 창문을 보고 있던 엄마에게 말을 한다.)

아빠: 지금 몇 시예요?

엄마: 일어날 때 됐어요. 날이 _____.

- ① **밝아 오고 있으니**까요
- ② 밝더라도 자야 돼요 .
- ③ 밝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해설 : 시간을 묻고 있는 아빠의 질문에 날이 밝아 오니 일어나라는 ①의 대답이 가장 적절하다. ②와 ③은 엄마의 앞선 대답과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

2) 유리: 지금 나가서 놀래?

지나: 응. _____

- ① 숙제가 끝나서 갔어.
- ② 숙제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먼 곳에 나가서 놀자.
- ③ **숙제가 거의 다 끝나 가니까 잠깐만 기다려 줘.**

해설 : 지나는 나가서 놀자는 유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3) (민과 할아버지의 대화. 고향을 떠나는 그림이 할아버지의 머리 위 말풍선)

민 : 할아버지는 언제 고향을 떠나셨어요?

할아버지: _____

- ① 고향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었지.
- ② **고향을 떠나 온 지 벌써 30년이 되었어.**
- ③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이곳도 마음에 들어.

해설 : 민은 할아버지에게 고향을 떠난 시점을 묻고 있다. .

3. 대화 연습

•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

• 정답 이외의 대답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예) A. 지금 나가서 놀래?

B. 응. 내일 시험 준비가 다 끝나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줘.

B'. 잠깐만.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거의 끝나 가니까

기다려 줄래?

과제

앞으로 과학은 얼마나 더 발전할까요? 미래에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래의 생활을 상상해 보고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대해 써 봅시다. 단,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상한 일을 써야 한다.
- '-아/어/여 가다/오다'를 사용해야 한다.
- 문어체(' -다, ㄴ/는다')로 써야 한다.
- 400~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현재 우리의 생활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 전화를 가지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또 유전자 연구가 발전하여 줄기 세포를 사용하여 손상된 몸의 조직을 재생하는 기술 같은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과학과 의학이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해 가면서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인간의 수명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하 생략>

도입 질문

-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옛날과 현재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
- 현재 과학의 발전으로 어떤 일이 가능한가?
-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떤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작문 지도

-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상상한 일, 문형, 문체, 길이)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 (처음-중간-끝)
-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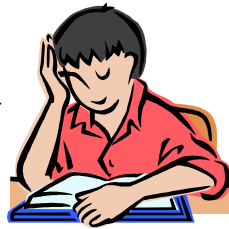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1.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엄마 : 잘 시간인데 아직도 숙제를 다 못 했니?
지나 : 지금 거의 다 _____고 있어요.

2) 민 : 지호야! 전에 빌려 준 그 책 다 읽었니?
지호 : 다 _____고 있어. 미안. 빨리 읽고 돌려 줄게.



3) 지영 : 지금 몇 시야? 이제 집에 갈까?
지나 : 그래. 벌써 날이 _____고 있어.

2. '-아/어/여 가다/오다'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며칠 전에 산 공책을 벌써 다 _____고 있다. (쓰다)
- 2)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_____. (되다)
- 3) 졸업 후 친구와 자주 연락을 못 했더니 사이가 점점 _____고 있다. (멀어지다)
- 4) 열심히 연구한 그 과학자들 덕에 우리의 과학이 계속_____고 있다. (발전하다)
- 5) _____



함께 풀어봅시다 (답안지)

1.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엄마 : 잘 시간인데 아직도 숙제를 다 못 했니?
지나 : 지금 거의 다 _____ 해 가 _____ 고 있어요.

2) 민 : 지호야! 전에 빌려 준 그 책 다 읽었니?
지호 : 다 _____ 읽어 가 _____ 고 있어. 미안. 빨리 읽고 돌려 줄게.



3) 지영 : 지금 몇 시야? 이제 집에 갈까?
지나 : 그래. 벌써 날이 _____ 어두워 오 _____ 고 있어.

2. '-아/어/여 가다/오다'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며칠 전에 산 공책을 벌써 다 _____ 써 가 _____ 고 있다. (쓰다)
- 2)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_____ 되어 간다. (되다)
- 3) 졸업 후 친구와 자주 연락을 못 했더니 사이가 점점 _____ 멀어져 가고 있다. (멀어지다)
- 4) 열심히 연구한 그 과학자들 덕에 우리의 과학이 계속 _____ 발전해 가고 있다. (발전하다)
- 5) _____